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중앙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농어촌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농어촌 목회자 초청세미나 열려

200여명 초청, 7월 4일(화) ~ 7일(금), 충현기도원
농어촌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

농어촌목회자 초청세미나가 7월 4일(화)부터 7일(금)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농어촌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개척, 교회지원, 농어촌전도대 파송 등으로 농어촌교회를 도왔다. 1972년에는 농어촌 교사(평신도)들을 초청하여 훈련시켜오던 중 농어촌목회자 초청훈련을 겸해 오기도 했었다. 그동안 중단됐던 것을 지난 해부터 농어촌교회의 현안 문제에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방향에서 도와주려는 의도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금년도 농어촌 목회자 초청세미나는 세계화 시대에 즈음하여 전국 농어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효과적인 사역과 교회 부흥에 기여하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 교회

가 농어촌 지역의 등대역할을 감당하고 새로운 비전과 확신을 심어주는 중심적인 사명을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농어촌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이라는 주제(주제 찬송 273장, 주제성구 딤편 6:11, 12)를 정하고 첫째 지역사회의 봉사와 복음전도, 둘째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새로운 방향 제시, 셋째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상호 협력관계라는 방향으로 강의와 훈련, 토론회, 기도회 등을 통해 세계화 시대를 영도해나가는 중추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미나를 여는 것이다.

초청인원은 약 200여명이며 숙식 및 교재대 등 모든 것이 무료이다. 농어촌교회 교역자로 지교회 및 지원교회 목회자와 목회자 세미나 수강자 중 농어촌을 살

리려는 의욕있는 목회자, 농어촌 복음화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진 목회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저녁 부흥회, 오전 특강, 오후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하며 레크레이션과 특별 휴식시간 등을 배정해 영육간에 휴식과 재충전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강사는 김창인 원로 목사, 당회장 신성종 목사 외에 가나안농군학교 교장 김범일 장로 등 8명이 담당한다.

접수는 충현교회 교육국(☎ 552-8200, 교 504, Fax 567-6073)으로 하며 접수 마감은 7월 3일(월)까지이다.

주요 교육훈련 내용 및 강사는 아래와 같다.

- 농어촌 목회자의 사명과 영성훈련
신성종 목사(충현교회 담임목사)
- 폐회설교
김창인 목사(충현교회 원로목사)
- 부흥회
주강사 김경원 목사(시현교회 담임목사)
- 세계화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
정용갑 목사(전주제자교회 담임목사)
-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상호협력관계
정용갑 목사(전주제자교회 담임목사)
- 농어촌의 현실과 비전

- 김범일 장로(가나안농군학교 교장)
- 21세기의 새로운 전도전략
정광우 목사(경산중앙교회 담임목사)
- 농어촌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길
노재석 목사(진안사랑교회 담임목사)
- 분임토의 주제
제1의제 '농어촌의 현실과 비전'
제2의제 '농어촌의 교회와 도시의 상호협력 관계'

세례식 및 성찬식

7월 7일(금)과 7월 9일(주일)에

금년 들어 네번째 시행하는 세례식 및 성찬식이 오는 7월 7일(금)과 7월 9일(주일)에 실시된다.

오는 7월 7일(금) 세례식을 앞두고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까지 담당교역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사람은 오는 7월 6일(목) 오후 7시에 교육관 307호에서 예비교육 및 문답을 받고 여기에서 통과된 사람은 7월 7일 오후 7시 갈릴리홀에서 세례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또한 7월 9일 주일 I부, II부, III부, IV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거행된다.

만나홀 주방 개선작업

교회는 선교관 지하1층 주방 만나홀의 주방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청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작업은 배식창구 개수공사 및 주방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자동식기 세척기를 설치하고 3드럼용 온수탱크를 새로 설치하게 된다.

제5회 충현올림픽
준비위원회 구성

교회는 오는 10월 3일(화)에 실시하게 될 제5회 충현올림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준비위원장 기획위원장 노광현 장로를 결정했다.

실로암 찬양대
'95 교회음악 성가연주 출연

찬양위원회에서는 매년 열리는 선민음악사 주최의 '95 교회음악 성가연주에 실로암찬양대를 출연키로 했다. 발표일은 8월 1일(화), 장소는 양재동 뿔뿔회관이다.

충현기도원 보수공사

교회는 충현기도원의 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실시할 공사는 수도시설 및 건물 내외의 도장공사이다.

교회 전산실
메인컴퓨터 신기종

교회는 현재 전산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인 컴퓨터를 신기종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는 실행속도가 늦고 많은 데이터 양을 처리하기가 어려워 신기종(SDT-820, 삼보, Ram 64MB, HDD 2.4GB)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전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주로 Back up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북한어린이를 위한
찬양의 밤 행사 참가

교회는 기독교 21세기운동본부가 주관하여 7월 24일(월)에 햇불선교회관에서 실시하는 북한어린이 선교를 위한 찬양의 밤 행사에 초동5부 찬양대 80명을 참가시키기로 했다. 이 행사는 전국지역교회 어린이 성가대가 참여하게 된다.

교역자 성지연수

1차 26명, 6월26일(월) 출발

우리 교회 전 교역자에게 실시하는 교역자 성지연수가 내일(26일)부터 실시된다. 제1차로 성봉환 목사 외 25명이 내일 출발하여 12박 13일 동안 실시하게 될 본 연수는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독일등을 거쳐 실시하게 된다.

교역자가 부재 중인 경우는 다른 교역자가 대리로 근무하며 명단은 지난주 주간충현을 참조하면 된다.



충현복지관 개관식예배

지난 6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충현복지관 개관예배를 드렸다. 이로써 우리 교회는 본격적으로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교회는 1991년 3월 4일 당시 보건사회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설립인가를 받고 1993년 3월 10일 봉사권을 건립, 헌당하였다. 그후 1994년 10월 10일 정관의 사업종류를 정신지체인 복지관 설치운영과 빈약한 자 구제사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에 1995년 5월 25일 정관의 사업목적에 의거 봉사관을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종합 복지법인 충현복지관으로 명칭을 정하고 시설 설치허가를 받게 된 것이다. 앞으로 복지관은 기초사업인 정신지체인 조기교육실 운영과 상담사업을 지속시키고 성인 지체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보호작업장 사업과 지역사회 욕구조사, 자원봉사자 운영, 영세 정신지체인을 위한 구제사업으로 후원 결연사업 등 정신지체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충현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41 ●

그리스도의 재림(2)

(계 19:11-21)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영광의 승리자되신 예수님과, 짐승의 멸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광의 승리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13가지로 아주 장엄하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중의 삶을 살 때의 초라하고 순교적인 보잘것 없는 그런 모습과 비교해 보면 너무도 대조가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백마는 승리의 장군이 타는 말입니다. 흰 말은 영광과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말은 그가 영광 속에 승리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충신’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충성’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진실’은 ‘진리’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란 말은 예수님은 진정한 구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눈이 불꽃같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속까지 통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까지도 다 살펴시는 불꽃 같은 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디아DEM(diadem)이라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쓰는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나라만 통치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많은 나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는 붉은 용도 일곱 면류관이 나뉘었다고 그랬으나 예수님은 붉은 용이나 사탄이나 마귀들과는 대조할 수 없는 많은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주님의 오른 장중에 있고,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13절에 “또 그가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엔 피가 뿌려져 있는데 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전 전년 인류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십자가를 지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원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정복자요 승리자로서 원수들을 심판하고 무찌를 때에 그 원수들의 피가 튀어서 예수님의 옷에 묻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

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란 말을 원문에 보면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Logos)은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12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라고 했습니다.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 밖에는 다른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뜻과 생각, 예수님의 그 섭리와 비밀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도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권능이 많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날카로운 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검은 평화의 검, 복음의 검이 아닙니다. 이 검은 파괴하고, 징계하고, 치리하고 처벌하는 그런 검입니다. 그래서 열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마치 포도를 추수할 때 포도를 따서 줍들에 넣고 발로 밟듯이 예수님의 그 진노의 발로 포도주들을 밟듯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평화를 주는 복음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 승리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 짐승의 멸망

본문 17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짐승의 멸망이 나옵니다. 영광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짐승은 멸망합니다.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바로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엔 아마겟돈 전쟁이,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20장 8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의 파멸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를 통해 볼 때에 전쟁을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다행이 그것이 한국이 아니고 저 중동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게 될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이, 가족이 지옥에 가고 불못에 빠지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면 비로 내 책임인데, 그 피값은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은 중동에 한정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아마겟돈 지역에 관한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것만 해도 열 가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아마겟돈 지역은 사탄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대와 싸움을 해서 패전하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말하자면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요 마지막 결론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잔치에 새들을 초청하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죽은 시체의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시체가 동물에게 먹히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들을 초청해서 죽은 고기를 먹게 하는 이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저주인 이유는 범죄하다가 형벌을 받아 죽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부활이 없는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옥에 빠지는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정말 슬픈 죽음인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보는데 붉은 용, 거짓 선지자, 마귀, 이들은 언제나 한 팀을 이루기 때문에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들이 한 일은 지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외적으로 탄압하고 또 교회를 내적으로 탄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바로 이 사탄마귀, 붉은 용,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잡혀가 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불못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무저갱과 불못은 다른데 무저갱은 사탄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고, 불못은 곧 지옥으로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이 불못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 무저갱에 들어가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불못에 들어가 다시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구름이 겹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 태양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듯이 우리는 지옥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이 전부 다 260장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표현한 것이 234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1장에 약 1번 정도는 지옥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천국에 관한 말보다 지옥에 관한 말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여러분, 지옥은 소망이 없고, 심지어 죽을래야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스펀전 목사는 지옥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쇠사슬마다 ‘영원히’라는 말이 써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습니까? 첫째로 지옥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두번째는 마귀가 들어갑니다. 세번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녹명되지 못한 사람,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거기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사랑 큰잔치를 합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이, 가족이 지옥에 가고 불못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면 바로 내 책임인데, 그 피값은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 사람씩이라도 다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감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린 본문을 통해서 신본주의, 경건주의, 낙관주의, 재림신앙의 종말론적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재림신앙의 특징은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에게 바칠 보고서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불못에 빠져서 심판관을 자기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소망을 가지고 그에게 바칠 보고서를 충실히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붙들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 대학부의 여름사역을 전망하며 ▶

올 여름은 현장에서 복음사역으로

수련회를 경남 김해, 마산, 창원 지역전도로 수련회 후 각 그룹별 해외 및 농어촌 전도사역

청 소년 문화공간과 활동공간이 전무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각자가 몸부림을 치며 공간을 잡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자신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청년1부의 교육관 5, 6층이 그렇고 고등부의 본당 뒷편 4, 5, 6층이 그렇다. 대학부는 선교관 지하 2층 식당이 대학부의 공간이다.

선교관 지하 2층의 메추라기홀 입구에는 여러 가지 벽보가 붙어있다. 대학부 자체 내의 소식을 알리는 벽보들인데 지난해 말부터 벽보의 내용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학부의 정체성을 알리는 내용, 방대한 조직, 각종 모임의 광고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부는 주일집회에서 일반적인 반편성(조편성)을 대폭 혁신했다.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반편성에서 크게 6개의 영역(국내전도, 해외선교, 통일준비, 사회봉사, 장애인 선교, 기타)과 그 안에서 또 다시 세분된 64개 영역으로 나누어 자신이 선택해서 반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들면 '국내전도'라는 큰 영역이 있고 그 밑에 병원전도, 청소년 전도, 노방전도, 낙도오지전도로 나누고 이를 활동할 수 있는 10명이내의 팀으로 나누어 각 팀마다 팀장을 두고 이들이 운영,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체제와 조직을 바꾸고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세분화함으로써 이러한 활동과 사역을 통해 그동안 교실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양육에서 현장성을 중시한 양육을 바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느 곳에서나 섬김이 수반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직업을 가진 직장인으로 직업적 사역 현장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복음사역의 자세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부는 꾸준히 교육과 훈련에 힘써오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양육훈련을 바탕으로 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역자(장로목사, 이준경 전도사)와 전 교사들, 선배들로 구성된 간사진들이 무엇보다도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기만해도 대학부는 역동력있게 움직이고 있고 뭔가 일이 일어나고있나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성령비전 2000'이라는 표어아래에 '신세대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에 생명을 걸고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며 무장시켜 100개팀 2000여명의 사역자'를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라고 대학부 지도 장로목사는 말한다.

이런 일의 가능성 여부가 이번 여름 사역에 나타나고 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이런 대학부 여름사역이 지금까지 외쳐왔던 '성령비전 2000, 성령의 대학부, 성령의 사람'(골 1:24-29)의 사금석에 아난가 생각된다.

국내전도 사역과 해외선교훈련으로 나누어 계획된 대학부의 여름사역은 그야말로 대학부 전 회원이 참여하여 실시될 계획이다.

국내전도사역으로는 전 대학부 회원을 대상으로 6월 27일(화)부터 7월 1일(토)까지 펼쳐지는 경남 김해, 마산, 창원 순회전도가 있다. 이는 금년도 대학부의 여름수련회로 실시되는 것으로 예상(200명)을 뒤엎고 330명이 신청하여 열기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김해지역의 장유수양관에 숙소를 정하고 김해, 마산,



▲ 시간이 있을때마다 모여 기도하며 토론하며 자신을 연단시켜 나가는 대학부 회원들

창원지역에 하루씩 투입되어 오전에는 공단 출근자에게 문서전도, 각 캠퍼스에서 개인전도 등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심지역, 상가, 아파트 등에서 노방전도와 개인전도, 축호전도를 그 지역 교회 대학생들과 연합하여 실시하고 저녁은 해군교회, 문창교회 등에서 전도집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4~5% 밖에 안되는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역동적인 복음운동의 역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지역 동원 교단 대학부와 연합해서 잠자고 있는 지역에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기로 지역 교회에 도전장을 주고 새로운 복음운동을 일으키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전체 수련회가 끝나면 해외선교훈련(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과 국내전도사역이 각 영역별, 팀별로 계획되고 있다.

◆ 해외선교훈련

·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여름성경학교 및 오지 선교여행(21명)

기간 : 7.24~8.3

장소 : 인도네시아 재카르타

주관 : 청년1부와 대학부 연합

프로그램 : 재카르타한인연합교회 여름성경학교 사역, 오지선교

· 일본동경 노방전도(17명)

기간 : 7.26~8.1

장소 : 일본 동경

프로그램 :

동경 시내 및 캠퍼스 전도, 선교특강

· 중국 및 백두산 선교여행(9명)

기간 : 8.10~17

장소 : 중국 및 백두산

프로그램 : 북경-연길-도문-백두산-용정-심양

장소 : 마산, 진해, 창원

프로그램 :

6월 27일 - 현지도착/ 현지 대학부원들과 연합집회

6월 28일 - 진해 시내전도/ 해군사관학교 및 작전사령부 견학/ 전도집회(해군교회)

6월 29일 - 마산 시내전도/ 공단 및 경남대 전도/ 전도집회(문창교회)

6월 30일 - 창원 시내전도/ 공단 및 창원대 전도/ 창신교, 창원남교 전도집회/ 전도집회(문창교회)

7월 1일 - 부산 해운대 전도/ 귀경

· 여름전도 수련회 후 각 팀별 농어촌 전도, 군전도, 낙도선교, 병원전도, 고아원생 여름캠프 전도를 펼칠 계획이다.

대학부는 여름내내 서울을 떠나 국내 외에서 전도,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과연 이 여름이 지나면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 것인가가 대학부나 대학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모든 것이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기에 다소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까지 교실에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없다면 더 이상 교육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기도나 물질로 함께 참여하면서 도와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내어 보내어 보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부 지도 장로목사 최의 마지막 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부딪치며 배우고 느끼는 것보다 더한 교육과 훈련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교육과 훈련의 목적이 '복음 사역'으로 집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기대하며 믿어보자 그리고 최대한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그래야 모두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태양이 빠알강게 익어가는 이 여름에 대학생들의 땀과 기도로 태어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뿐이다.

이제는 우리가 책임질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책임질 때입니다! 금번 여름 전도수련회의 슬로건이다. 물론 책임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사람은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혀 무책임한 존재도 아니다. 적어도 인격체인 사람이 자신의 시대와 주변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의지는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 남단의 몇개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젊은이들이 우리 민족과 시대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는 몸부림이다. 이 몸부림을 같이 나누자는 단순한 마음이 금번 수련회를 결정하게 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먼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하자. 둘째는 그곳 청년 대학생과 함께 이 책임의식을 나누자. 셋째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의 성실한 의지를 보여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4박 5일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 함께 참가하지 못하지만 매일 저녁 교회에서 현지 전도담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으로 책임지자.

이제는 우리가 책임질 때이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들, 책임지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우리가 살면서 외쳐야 하는 말이다 "이제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로목사(대학부 지도)

'교회학교 학생의 상담' 교사 단기수련회

7월 12일(수), 13일(목) 오후 7~9시

교육위원회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교회학교 교육에 필요한 상담원리를 배워 교회학교 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교회학교 학생의 상담'이란 주제하에 교사 단기수련회를 개최한다.

7월 12일(수), 13일(목) 오후 7~9시에 실시될 단기수련회는 정광욱, 김희수 목사와 현대교회의 임승원 목사가 수고하게 된다.

첫날을 김희수 목사가 '주일학교 상담 이론'에 대하여 둘째날은 임승원 목사가 '주일학교 상담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강의하게 된다.

교회학교의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열리는 단기수련회로 모든 교사가 참석해야 한다.

요한 친선체육대회

6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요한전도회에서는 6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중산동 체육공원에서 친선체육대회를 갖는다.

제10-2교구, 제13-1교구, 제7-1교구를 중심으로 모인다.

직원모집

본 교회 사무국에서는 참된 청지기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할 가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경비직 : 남 0명

- 미화직 : 남 0명

(40~50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도)

- 자격 및 제출서류 :

각항 공히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 직원 복무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이력서 1부(사진첨부)

2. 교구목사 추천서(본교인) 1부

3.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1부

- 제출처 :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교 402)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6/25(주일) 일산 좋은교회 입당예배 설교
6/26(월) 고신 서울노회 해방50주년 기념집회 설교
· 신성중 목사 : 6/25(주일) 명성교회 주일저녁예배 설교
2.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때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3.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께서 축복하시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많이 뽑히게 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새로 등록된 중현의 새가족에게

새가족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를 !

윤삼중

(목사, 새가족위원회, 한국교회성장연구원 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충현교회에 등록된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당당한 한 식구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랑스런 충현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 교회를 출석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주며,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새 힘을 공급해주는 샘터입니다.

이 샘터를 떠나서는 참된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절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예수사랑 큰잔치에 보였던 많은 얼굴들이 몇 주가 지나면 보이지 않아 심히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생활에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지 못하고 곧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은 세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권유로 교회를 나왔으나 누군가 끝까지 붙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새가족이 쉽게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의 문제나 필요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신앙의 좌절감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새가족은 항상 교회의 사랑을 받아야 할 특권이 있으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둘째는 내가 왜 교회를 지속적으로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와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도 않고, 신앙의 기본 진리를 체계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나의 죄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무엇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항상 새가족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확신있는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가족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고, 신앙생활의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기존신자들이 새신자에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새신자는 교회의 분위기를 조금씩 파악하면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위원회에서는 새가족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전문적인 양육위원 90여명이 소수의 인원을 반으로 편성하여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어 양육부 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새가족들을 돕기 위해 240여명의 교구양육들이 교구별로 편성되어 예배 참석, 신앙의 고민과 갈등, 구역 및 전도회 가입 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단기간(4주코스)으로 새신자 교육을 마치는 것에 비해 우리 충현교회는

전통적으로 새가족들을 자세히 교육시키고,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이라는 긴 기간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양육위원들과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 형성, 신앙에 필요한 거의 모든 사항을 배워 참으로 멋진 신앙인으로 자리잡을 수가 있습니다.

새가족위원회 양육훈련 프로그램

1.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 (26주 과정)

(1) 구원의 확신 - 이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지도하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이해 -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이해를 통하여 확고한 신앙관을 정립하도록 지도하며, 기독교와 이단에 대하여 차이점을 인식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교회원칙으로 성장 - 교회 전통과 영적인 흐름, 교회 행정체계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며, 교구모임, 구역예배, 전도회, 교회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양육부집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은 후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그리스도인의 삶 -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본받도록 지도하며, 말씀, 기도, 교제, 중거 등의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이 체질화되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학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다른 교회학교와 연결이 이루어져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이 열려져 있다.

2. 적응반 교육 (4주)

일반 교회에서 제직으로 봉사하시다가 여러 이유로 충현교회에 등록된 분들에게 교회의 전통과 영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1) 제 1주 : 충현교회의 설립, 성장배경, 전통 등을 비디오 테이프를 소개, 적응반 양육위원과 소그룹 모임 및 자기 소개

(2) 제 2주 :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생활의 시작

(3) 제 3주 : 주일 성수

(4) 제 4주 : 교회생활과 성장

최소한의 기간의 교육을 통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곧바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한다.

양육부 집회시간은 매주 10시 30분, 장소는 갈릴리 홀(본당 지하1층)에서 모인다. 본 집회에 참석하려면 주일 2부 예배를 드린 후에 참석할 수 있으며, 또한 미리 양육부 집회에 참석하여 공부를 마친 후에 주일 4부 예배를 드리면 된다.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새가족들은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안내위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신앙의 기반이 되는 기독교 기본 진리와 생활에 대한 원리를 자세히 교육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하여 충현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은 꼭 양육부 집회에 오셔서 생동감이 넘치며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는 말씀 공부를 배우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섬기고 계시는 양육위원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십시오.

참석하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